

외교부 :

중국, 중동지역 평화·안정 회복 위해 건설적 역할 할 것



13일, 테헤란에서 구조대원들이 이스라엘군의 습격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정리하고 있다. / 신화넷

외교부 대변인 광가곤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이스라엘 분쟁에서의 중국측 역할에 대해 답하면서 "충돌이 발생한 후 급진적 주석은 중국측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중국은 이란, 이스라엘, 애급, 오만 및 각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가곤은 "중국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지역 국가 및 국제사회와 함께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민, 이란·이스라엘서 철수

광가곤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외교부와 주 이란, 이스라엘 및 주변 관련국 중국 대사관 및 령사관의 조직과 조정 하에 1,600여명의 중국 공민이 이란에서 안전하게 철수했고 수백명의 중국 공민이 이스라엘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광가곤은 "외교부 및 관련국 주재 대사관 및 령사관은 계속해서 중국 국민의 안전한 이동과 철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이스라엘, 지역 국민의 리익 최우선으로 즉각 휴전해야

광가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점점 더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람국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

의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중국측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광가곤은 "충돌이 격화되면 승자가 없으며 더 큰 파괴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중국측은 충돌 당사자 특히 이스라엘이 지역 국가 국민의 리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즉시 휴

중지역의 정세는 긴장되고 민감하며 통제 불능의 위험에 직면해있다."면서 "중국은 유엔현장의 목적과 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과 안전, 영토완정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도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미사일 공격으로 파손된 이스라엘 남부 베르세바의 의학중심. / 신화넷

전하고 전쟁을 중지하여 현재의 긴장 상태를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표시했다.

타국 주권·안전 침해 행위 반대

광가곤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중

광가곤은 이어 "국제사회 특히 영향력 있는 대국은 공정한 립장과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하여 휴전 및 전쟁 중지를 촉진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 정세가 나락으로 빠져 더 큰 재앙을 초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이스라엘에서 철수한 중국 공민들이 애급 남시나이주 타바통상구에서 차를 타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 신화넷

로씨야 대통령 뿌진 :

이스라엘-이란 대화 중재 의향 있어

18일, 크레믈리궁 공식사이트에 오른 소식에 따르면 로씨야 대통령 뿌진은 아랍추장국련방 대통령 셰이크 모하메드와의 전화회담에서 로씨야는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 각측의 대화를 추진하는 면에서 '중재적인 지지'를 하려 하며 이 의향과 관련해 이미 여러 국가 지도자들과 소통했다고 표했다.

크레믈리궁의 소식에 따르면 로씨야와 아랍추장국련방 지도자는 중동지역의 긴장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 쌍방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이 정세는 지역 전체에 '극히 부정적인'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화회담에서 로씨야와 아랍추장국련방 대통령은 충돌 당사자들은 빨리 휴전을 하는 동시에 정치, 외교 면의 노력을 강화하여 이란 핵계획과 관련된 쟁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로씨야 외무부 대변인 자하로바는 제 28 회 산끄프-빠페르 부르그 국제경제포럼에서 매체에 로씨야측은 이란 핵계획을 둘러싼 대화에 중재할 의향이 있다면서 대야측의 목표는 로씨야의 조정하에 정치, 외교 면의 노력을 거쳐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신화넷

조선 외무성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적 공격 규탄

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19일 담화를 발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적 공격을 규탄했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13일 새벽 이란에 대한 무차별적인 대규모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 이스라엘의 불법적이고 무도한 국가 테로 행위는 중동지역에 새로운 전면 전쟁의 위험을 키우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조선은 이스라엘의 군사

적 공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또한 현재 미국 등 서방의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중동지역 평화의 압력 존재이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며 이스라엘과 이를 강력히 비호하는 배후 세력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데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 신화넷

헤즈볼라 지도자, 이란 지지 성명

6월 19일 저녁, 레바논 헤즈볼라(真主党) 지도자 카심은 이란 지도부를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카심은 성명을 통해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위협한 것은 이 지역의 모든 국민에 대한 침략"이라

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이 지역을 혼란과 불안정으로, 세계를 공개적인 위기로 이끌고 있다."고 비난했다.

카심은 "헤즈볼라는 중립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며 잔혹한 이번 침략 행위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화넷

미국 류학생비자 신청자에 SNS 심사



18일, 미국 국무부는 미국에 류학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社交媒体) 등 온라인 활동을 검열할 것을 외국 주재 자국 공관에 통보했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령사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문화, 제도 등에 대해 이견을 가진 게시물과 정보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미국 령사관 관계자는 학생비자 신청자의 인터넷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는 동시에 해당 내용이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를 캡

처(截图)하여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비자 신청자 중 자신의 SNS 계정을 '공개' 상태로 설정하지 않아 심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재집권후 '교정내 반유대주의'를 타격한다는 명분으로 하버드대학, 콜롬비아대학 등 대학교에 대해 '발포'했다. 대 미국 언론은 이를 민주당이나 자유파 진영을 타격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 신화넷

올해도 금배추일가?

올여름 한국 배추 생산량 감소 예상

한국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올여름 한국 배추 생산량이 평년의 4분의 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4년 배추 가격이 폭등한 '금배추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올여름 한국 배추 생산량은 약 23.6만톤으로 전해보다 24.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배추 재배면적은 약 3,418헥타르로 전년 대비 8.8%

줄어들고 력사적 평균 수준보다 23.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기구는 농작물 손상,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재배 조건 악화 등 원인으로 배추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9월, 재배면적 감소, 극심한 가뭄, 이상 고온 등 기후 요소의 영향으로 한국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포기당 약 한화 1만원(인민페로 약 52원)으로 상승했다. / 인민넷-조문판